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 만들기 힘쓰니 귀농가구 ‘쑥’

농협 전남본부, 올해 순천 금산마을 등 3개 마을 경진대회서 수상 총 16개 수상 마을 배출... 지난해 전남 귀농가구원 3100명 돌파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전남농협이 올해 3개 마을을 포함해 총 16개 수상마을을 배출했다.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자는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전남 귀농가구원은 처음 3100명을 돌파했다.

2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4번째로 열린 농협중앙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전남농협 소속 지역농협들이 금·은·동상 등 3개 부문을 석권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금상은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제) 금산마을이 차지했다. 마을 주민들은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순천농협은 관할 마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회에는 순천농협 문성마을이 금상과 상금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올해 대회에서 은상인 해남 계곡농협(조합장 임정기) 강절마을은 농협중앙회장상과 상금 1000만원을, 동상인 담양 고서농협(조합장 최창기) 청춘

마을은 농협중앙회장상과 상금 7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농촌마을 가꾸기’ 대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촌마을을 주도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총 116개 마을이 대회에 응모해 행정안전부 장관상(금상) 2곳과 농협중앙회장상 27곳 등 총 29개 마을이 수상 마을에 선정됐다.

지난 2018년 대회를 시작한 이후 전남지역 농협들은 꾸준히 수상 마을에 들고 있다.

1회에서는 나주 남평 도래마을(최우수상), 순천 운룡마을(우수상), 영암 금정 신유도마을·장흥 천관 선학동마을(장려상)이 수상했다.

‘들녘 가꾸기’와 ‘마을 가꾸기’로 나뉜 2회에서는 전국 최다 수상자 배출을 기록했다.

들녘 가꾸기 부문에서는 영암 쌍정마을(대상), 고흥 신호마을·여수 울촌 반월마을(은상)이 수상했고, 마을 가꾸기 부문은 순천 서동마을(금상), 고흥 흥양 신촌마을·나주 다시 신평행복마을·무안

■ ‘농촌마을 가꾸기대회’ 전남 수상 마을

1회(2018년) 4개	나주 남평 도래마을(최우수상), 순천 운룡마을(우수상), 영암 금정 신유도마을·장흥 천관 선학동마을(장려상)
2회(2019년) 7개	‘들녘 가꾸기’ 영암 쌍정마을(대상), 고흥 신호마을·여수 울촌 반월마을(은상) / ‘마을 가꾸기’ 순천 서동마을(금상), 고흥 흥양 신촌마을·나주 다시 신평행복마을·무안 천계 구로마을(동상)
3회(2020년) 2개	순천 문성마을(금상), 고흥 흥양 쌍섬마을(동상)
4회(2021년) 3개	순천 금산마을(금상), 해남 강절마을(은상), 담양 청춘마을(동상)

천계 구로마을(동상) 등 총 7개 수상 마을이 나왔다.

지난해 열린 3회 대회에서는 순천 문성마을(금상)과 고흥 흥양 쌍섬마을(동상)이 총 24개 수상 마을에 포함됐다.

박서홍 농협 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농촌마을에 이번 경진대회 수상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이 대회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4회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전남지역 수상마을을 3곳에 상패와 상금을 전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한편 도시민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전남 귀농가구원 수는 전년도보다 11.6%(324명) 증가한 310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귀농가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흥(249명)이었고, 무안(244명), 나주·화순(각 202명), 순천(190명), 해남(186명), 담양(178명), 영암

(170명), 보성(164명), 장성(150명), 함평(144명), 강진(137명), 영광(135명), 신안(128명), 장흥(125명), 곡성(112명), 진도(98명), 여수(82명), 구례(74명), 완도(72명), 광양(6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농촌유학센터 6곳 운영...귀농·귀촌가구 증가 효과 기대

27명 유학생...구례 11명 유치 농어촌공사 역할 확대 방향 논의

올해 전국 29개 농촌유학센터에 320여 명의 초·중학생이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30명 가량의 유학생이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울 학생 165명이 전남에서 농촌유학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공사 역할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고 농촌유학의 현주소를 살피고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유학생을 유치한 농촌유학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시범사업 때 9900만원이었던 사업비는 2018년 7억55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 뒤 2019년 11억5500만원, 지난해 7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

올해는 전남 6곳을 포함한 전국 29개 농촌유학센터에 국고 7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곡성 참살이 농촌유학센터 등 올해 전남에서 운영된 농촌유학센터 6곳에는 27명의 유학생이 교육받고 있다. 이들 시설에는 총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유학생 11명을 유치한 구례 지리산 숲놀이 농촌

유학센터는 농촌유학 우수시설로 꼽히기도 했다.

농촌유학은 유학생과 학교·마을의 지속적인 연계로 귀농·귀촌가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토론회에는 김인식 공사 사장과 농촌유학센터장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농촌유학 활성화의 필요성과 활성화 저해요인, 공사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8개 시군에서 참석한 농촌유학센터장과 해당 소재지 관할 지사장들은 ▲공사와 센터의 자체결연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센터 지원 ▲지역 거버넌스(민·관 협력)를 활용한 센터 지원방안 등에 대해 공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농협, 쌀 매입량 전년비 47% 급증

쌀값 한 달 새 3% 하락

올해 전남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이달 중순 전남지역 농협들의 자체 쌀 매입량은 전년보다 47% 급증한 상태다.

2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쌀(정곡) 자체 매입량은 지난 16일 기준 27만9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t)에 비해 46.8%(8만9000t) 증가했다.

올해 전남농협이 사들이기로 한 쌀 수량은 총

36만4000t으로, 이달 중순까지 76.6%를 채웠다.

전남농협 매입량은 전국(170만t)의 21.4%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한 해 전남농협 쌀 매입량은 26만5000t으로, 올해 배정량은 전년보다 37.4%(9만9000t)이 많다.

전남지역 공공비축미는 이달 중순까지 3만9400t이 매입됐다. 올해 배정량은 9만1000t으로, 전년 매입량 8만8800t보다 2.5%(2200t) 늘었다.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1601t인데, 내년 예상 수요량인 357만t을 빼면 31만t 가량

이 남아돌게 된다.

이 같은 쌀 생산 증가 영향은 산지 쌀값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정곡 80kg 평균 가격은 21만 3760원으로, 한 달 전(22만428원)보다 3.0%(6668원) 하락했다. 6개월 전(22만3460원)보다는 4.3%(-9700원) 떨어졌다.

정부가 쌀 시장격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1일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예방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시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농민단체들도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긴급농민대회에서 쌀 시장격리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백희준 기자 bhj@



“새콤달콤 ‘설향 딸기’ 맛보세요” 21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이 올해 첫 수확한 ‘설향’ 품종 딸기를 선보이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라벨을 없앤 친환경 포장 딸기를 할인 가격(500g 1만1900원 등)에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